

碧史 李佑成과 ‘한국문학사’의 인식 및 서술 체계

— 『국문학사』와 『한국문학통사』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柳浚弼*

- | | |
|----------------------------------|--------------------------------|
| I. 들어가며 | IV. 이우성과 『한국문학통사』의 실제 서술
양상 |
| II. 조윤제의 문학사 인식과 이우성 | V. 나가며 |
| III. 이우성과 『한국문학통사』의 문학사
인식 체계 | |

●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이우성의 한국학연구가 한국문학사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해명하는 데에 있다. 이우성을 전후하여 한국문학사 서술을 대표하는 조윤제의 『국문학사』와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와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고, 조윤제의 『국문학사』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한편으로 조동일 『한국문학통사』의 한국문학사 인식 체계 형성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살폈다. 이우성은 자신이 직접 한국문학사를 저술한 적은 없지만, 한국문학사의 인식 및 서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고려시대부터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사대부의 역사적 부침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사의 거시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우성은 조윤제의 『국문학사』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한편으로 조동일 『한국문학통사』의 한국문학사 인식 체계 형성에 적잖은 기여를 했다. 이우성 본인이 직접 천명한 한국문학사의 역사상은 부분적이었지만 그것이 없었다면 한국문학사의 전반적 면모를 구조화하는 성과는 쉽게 등장하기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어려웠다고 평가할 만하다.

주제어 : 이우성, 조윤제, 조동일, 한국문학사, 실학, 사대부

I. 들어가며

이우성 학문의 요체가 ‘문학’에 있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였지만, 한국문학을 연구한 학자로 우선 기억되지는 않는다. 정작 본인도 마뜩찮게 여기셨을 성싶다. 한국학자 다소 양보하더라도 한국 역사학자 정도가 타협처가 될 듯하다. 단적으로 이우성은 문학사를 서술한 적이 없다. 집작컨대 목표로 삼은 적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학사’의 인식 및 서술과 관련하여 이우성의 성취를 다루는 일이 녹록하진 않다. 잠재적인 형태로라 할지라도 이우성의 학문은 한국문학사의 인식 및 서술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토대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다.

한국문학사의 인식 방법론과 거기에 합당한 서술 체계를 마련한 대표적 성취를 들라면 그 앞자리에 당연히 조운제가 놓일 것이다. 조운제 이후라면 다양한 성취들 중에서 그 영향도가 가장 크다고 할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이겠다. 이우성은 그 사이에 위치하면서 조운제의 한국문학사 서술을 나름의 방식으로 계승하는 한편 조운제 이후 새로운 한국문학사 인식 및 서술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닦았다. 이우성의 전후로 펼쳐진 뚜렷한 한국문학사 서술의 양각 사이에 음각으로 자신의 자리를 마련한 이우성의 위상과 역할에,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밝은 조명이 비춰지도록 더듬어 보고자 한다.

II. 조운제의 문학사 인식과 이우성

1964년 이우성은 조운제의 문학사관을 다룬 한 편의 글을 발표한다. 『성대문학』 10호에서였다. 조운제의 한국문학연구의 전반적 성격을 두고, 식민지 시기의 ‘국학’에서 민족사관으로의 혁신적 전환이라는 각도에서 정리한 글이었다. 먼저 1963년에 간행된 조운제의 『개수 국문학사』의 서문을 인용하였다. 그 서문의 요지는, 조운제 자신의 민족사관과는 다른 새로운 문학사관을 기대한다는 것이었다. 이우성의 풀이는 이렇다.

필생의 정력으로 이룩해놓은 그의 ‘민족사관’에 대하여 스스로 한계를 그으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권위로 임하지 않으려는 숭고한 태도는 “역사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그의 의식의 저류 속의 진리를 일상적 실천에서 구현한 것이며, (……) 여기 우리는 박사가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학문의 진보’를 위하여 박사가 말씀하신 ‘또다른 사관’에의 추구를 위하여 먼저 박사의 ‘민족사관’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것을 가교로 삼아 광휘에 차 있는 피안—과학의 세계에 도달해야 할 것이다.¹⁾

위 인용문의 요지는, 요컨대 민족사관 이후의 문학사 인식과 서술을 위해 조운제 민족사관의 의의와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다. 여기에는, 그 한계 너머에 “과학의 세계”가 있고 그 세계로의 가교 역할을 해줄 새로운 문학사관의 건립이 요청된다는 주장이 함축되어 있다. 이우성의 시선에는 조운제의 문학사 서술이 도달된 최종 지점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가 포착된다.

이와 같은 국문학사의 전개(문학사 시대구분—인용자)로 하나하나의 문학사상 내지 역사적 현상에 대하여서도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의의를 발견하게 되었다. 1963년 『개수 국문학사』는 이러한 경향을 일층 발전시킨 것이다. 전번의 위촉시대를 위촉시대와 잠동시대로 양분하고 고려중기 이후를 잠동시대로 규정하였다. 고려중기의 대몽고전쟁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 장기항전을 높이 평가하여 민족의식에 눈뜬 것이라 말하고, 이 시대로부터 잠동된 민족의식은 이씨조선의 성립과 더불어 크게 소생하여 국자 한글의 제정을 위시한 민족문화의 흥륭을 보게 되었다라고 한 것이라든지, 고려의 불교가 이조초기의 도학에 의하여 극복되고 도학은 이조후기의 실학에 의하여 극복된 것이라고 한 것 등은 모두 민족의 ‘삶’의 연속체의 부단한 전개를 발전적인 사관에 의하여 파악함으로써 실로 눈부신 수확을 얻었던 것이다.²⁾

밑줄 친 부분을 고쳐 읽어보자면, 고려 중기 대몽골항쟁 이후 민족의식이 발흥하고 이러한 변화는 조선 건국으로 이어지며 조선 건국을 가능하게 한 이념과 사상은

-
- 1) 이우성, 「도남 국문학에 있어서 민족사관의 전개」, 『한국의 역사상』(『이우성저작집』1) 390~391면. 이하 이우성의 저술 인용은 『이우성저작집』 1~8, 창작과비평사, 2010에 의거한다.
 - 2) 이우성, 「도남 국문학에 있어서 민족사관의 전개」, 『한국의 역사상』, 398면.

조선후기 실학에 의해 비판적으로 극복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겠다. 조운제의 민족사관을 앞에 놓고 발화된 이러한 이해와 평가 속에는, 기실 이 당시의 이우성과 이 이후의 이우성이 이미 우뚝해 보인다. 이우성 학문의 전모는 아니지만 그 핵심적 문제의식이 뚜렷이 나타나 있다. 이른바 고려 중기를 계기로 역사의 무대에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한 ‘사대부’ 계급이 그 역사적 의의를 차츰차츰 상실해 가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실학을 통해 자기 해체와 혁신을 동시에적으로 수행하고자 한 면모까지 두루 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운제의 문학사관을 평가하기까지 이우성과 조운제의 인연은 이미 깊다. 이우성은 1947년 성균관대학교에 적을 두고 부산으로 내려와 교편을 잡고 지내던 중 전쟁을 만났다. 그러던 차에 “1951년 부산에서 성균관대학이 야간에 개강하게” 된다. 이우성의 회고는 이렇다. “나는 한 건물에서 낮에는 교사, 밤에는 학생 노릇을 하였다. 이때 나는 밤이면 국문학사를 담당하신 조운제 교수님의 민족사관의 강의를 정청하”였다.³⁾ 이우성은 1954년부터 동아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1960년 4월혁명 당시 “학원 민주화운동에 적극 가담한 이유로” 사표를 낸다. “그러던 중 서울에서 조운제 박사의 특별한 노력으로 성균관대학에 봉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정작 조운제는 1961년 5·16 직후 성균관대학에서 추방되고 말았다.

1964년 조운제에 관한 글을 발표하기 전까지 이우성은 「실학파의 문학」(1957)과 「18세기 서울의 도시적 양상」(1963) 등 실학 관련 연구를 병행하면서, 「고려백성고」(1961) 「閑人·白丁의 신해석」(1962) 「고려중기의 민족서사시」(1962) 「고려조의 吏에 대하여」(1964) 「고려말·이조초의 어부가」(1964) 등 고려시대의 사회계층 연구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우성은 이렇게 밝혀 놓았다. “대학 졸업 논문은 실학에 대한 것이었으나 실학의 비판정신이 사대부의 계층적 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깨닫고 사대부에 관한 공부에 뜻을 두고 그 기원을 찾아 고려후기까지 소급하면서 고려사회 신분제도를 규명하려 하였다.”⁴⁾

앞서 인용한 조운제 문학사관에 대한 이우성의 평가는 자신의 이러한 연구 작업에 기초한 것이었다. 특히 사대부계층을 중심으로 고려후기에서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3) 이우성, 「자찬 연보」, 『高陽漫錄』, 492면.

4) 이우성, 「자찬 연보」, 『高陽漫錄』, 493면; 논문 발표 연도는 김시업, 「백사 이우성선생 연보」, 『高陽漫錄』, 498~499면에 따른다.

를 연속적으로 파악하는 시각은 이미 그 자체로 조운제 이후의 새로운 문학사 인식을 내장하고 있었다. 단적으로 이규보와 이승휴의 작품을 중점적으로 다룬 「고려중기의 민족서사시」에서 이우성은 두 작가의 출신에 대해 주목하며 새롭게 대두하기 시작한 신흥 계층으로 파악한다. 이규보에 대해서는 “당시 지방에서 진출해온 가계도 관위도 대단치 못한 처지였으나, 일정한 토지와 노예를 소유하여 새로운 사회조건에 적응하면서 전진할 기반을 닦아놓은” 집안 출신이라고 하고, 이승휴에 대해서는 “몇 사람의 노예를 거느리고 약간의 전토를 자영하는 소토지소유자”라고 파악함으로써 그들이 이른바 신진사인에 속한다고 보았다.⁵⁾

이들의 역사적 배경은, 평양천도운동이나 대몽골전쟁 등 12·13세기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민족의 수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 무인 집권은 “낡은 귀족 세력의 청산”과 “신진사인의 진출”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여기서 신진사인이란 “지방에서 신흥한 중소지주층 출신으로,” “전시과체제의 분해 과정 속에 사유지를 가지기 시작한 지방토착세력”이었으며, “새로운 경제관계를 발판으로 신시대의 각광을 받게 될 인간들”로서 “고려후기의 신평료—사대부계급으로 발전”하였다.⁶⁾

문학사적으로 볼 때 이규보와 이승휴로 대표되는 이들 계층의 대두는 고려 전기 이래 향가가 한시로 대체되던 시대를 배경으로 삼아, 한편으로는 한문학 작가층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가 형식인 경기체가를 향유하던 문학담당층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이우성의 직접적인 진술은 이렇다. “전세기의 향가가 신라의 혈통을 이어가진 구귀족—왕조에 기생하는 관인들의 소극적 영탄물의 殘喘이었음에 대하여, 경기체가—「한림별곡」은 고려의 지방 풍토 속에 자라난 초기 신진사인들의 집단적 행진곡이기도 하였다.” “이 신진사인들은 모두 한문학의 문호였다. 한시의 정취에 깊이 젖어 있으면서도 그들은 민족의 리듬을 되살려서 노래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위대한 민족의 수난기”에 이규보와 이승휴 등은 “서사시적 의욕의 왕성에도 불구하고, 시가 전통의 嚮替와 문자·언어 등 제조건의 미숙 때문에 겨우 별곡체 서사시를 성립시켰을 뿐이고 장편 서사시에 이르러서는 독자적 민족시의 신행태를 창출하지 못한 채 오직 한시 오칠언 장편의 체재를 답습했던 것이다.”⁷⁾ 이러한

5) 이우성, 「고려중기의 민족서사시」, 『한국의 역사상』, 329·335면.

6) 이우성, 「고려중기의 민족서사시」, 326~327면.

7) 이우성, 「고려중기의 민족서사시」, 366면.

설명이 고려 중기에 창작된 민족 서사시 두 편에 대한 이우성의 문학사적 인식과 해석이었다.

이러한 문학사 인식은 그 시야를 더 확장해 간다. 12·13세기 민족적 수난과 저항의 시대에 시인은 민족의 운명에 대한 관심 즉 집단 의식에 기반함으로써 장편의 서사시 창작을 수행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지배층이 민중의 저항 의식을 저버림으로써 서사시의 자기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 의식의 분열에 이르게 되었다. 즉 서사시 형식의 지속이 불가능해졌고 그 이후에 고려의 문학은 “지배층의 문학인 경기체가와 민중의 문학인 장가(고속가)의 두 갈래 방향으로 나누어졌다”는 것이 이우성의 확장된 인식이었다.

「고려중기의 민족서사시」는 신진사인 혹은 신흥사대부의 등장이라는 신분 혹은 계층론적 시각을 근거로, 서사시·경기체가·장가(속악가사) 등 동시대 문학 장르와의 상관성을 체계적으로 환기하고 있다. 문학사 인식 혹은 문학사의 서술 체계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문학사적 시대상이란 새로운 문학 창작 및 수용 계층의 변동과 문학 장르의 상호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되어야 한다는 적극적 제안이기도 하다. 물론 고려 중후기라는 한정된 시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이우성의 문학사적 인식에는 이우성 이후로 전개될 한국문학사 서술의 체계를 예비하고 있다.

다음으로 진전 가능성을 잔뜩 품은 채로 이우성의 시선은 後進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을 향한다. 이우성의 목소리가 마무리가 되는 지점은 다른 누구도 아닌 조운제로의 복귀였다.

이와 같은 고려문학의 계급적 분열에 대하여, 진작 착안하고 그것을 도파한 분은 조운제 박사이다. 여기 박사의 말씀을 인용하여 끝을 맺는다. “경기체가 는 …… 한학자의 손에서 성립되고 오직 한학자간에서만 배양되어 나왔다. 그러므로 일반민중과는 처음부터 유리되었던 것이니, 그것이야말로 완전히 한학 자라는 일부 특수계급인 귀족의 문학이었다. 고려의 장가가 문자와 유리되어 완전히 평민계급에서만 발달한 데 대하여 좋은 대조가 되리라 생각되거니와, 여기에 고려의 문학은 평민문학과 귀족문학이 완전히 대립하게 되었다.”⁸⁾

8) 이우성, 「고려중기의 민족서사시」, 378면.

인용문에 따르면 이른바 신흥사대부의 등장이 초래한 사대부문학이 진전되면서 그 문학은 민족적 지향성이 약화되고 문학의 분열과 대립이 초래되었다. 조운제는 이를 두고 ‘평민문학과 귀족문학의 대립’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우성은 자신의 문학사 인식이 조운제에게 크게 빚지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동질적이라 할 만큼 같으나 하면 그것은 아니다. 이우성 자신에 의해 재정립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궤를 같이 하는 인식이 된다. 이우성의 재정식화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조박사가 말씀하신 귀족문학의 ‘귀족’은 일반적 의미의 지배층을 뜻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고려 후기 사대부계급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논고의 용어에 따른다면 귀족문학이라는 말은 사대부문학이라고 개칭해도 무방할 것이다. 鄉風體 歌作을 중심으로 한 고려전기 귀족계급의 문학과 구별하기 위하여 그 후기의 경기체가·어부가 등을 사대부문학으로 부르는 것이 좋을 듯하다.⁹⁾

조운제의 귀족문학은 무엇보다 표기문자를 우선시한 명명이다. 그것은 국어(민족어) 혹은 차자표기로 된 창작은 도외시하고 한문학 창작에만 힘쓴 지배층의 문학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계층 혹은 계급론적 시야로 문학사적 현상을 파악하는 이우성의 시각과는 거리가 다소 멀다. 더군다나 조운제는 경기체가의 부정적 평가 직후에 “시조의 발생”이란 항목을 두고 정몽주의 「단심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시조의 발생 시기를 고려 중엽 이후로까지 소급하면서 말이다.¹⁰⁾ 이우성이 언급한 「어부가」와 시조가 무관하지 않고 이에 따라 시조의 발생 문제를 사대부문학과 관련지을 수도 있음을 감안하자면 그 거리는 더 멀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운제의 문학사 인식을 이우성 자신이 직접 계승하고 있다고 자처한 것에는 좀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고려중기의 민족서사시」는 1962년에 발표되었다. 이우성이 성균관대학교로 부임한 직후이자 동시에 조운제가 성균관대학에서 밀려난 직후의 일이다. 그리고 이우성의 소속 학과도 역사학 전공의 학과가 아니라 국어국문학과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논문의 핵심 논지는 이미 1956년에 발표된 적이 있다. 「이규보·이승휴 시대의 연구」

9) 이우성, 「고려중기의 민족서사시」, 378면의 각주 17).

10) 조운제, 『국문학사』, 동국문화사, 1949, 69~75면; 『한국문학사』, 동국문화사, 1963, 94~102면.

라는 제목으로 국어국문학회 부산지회 연구발표회에서 제시되었다. 이우성의 설명은 이렇다. “이 논고는 부산시절의 낡은 적발을 다시 정리해낸 것이다. 제목을 달리할 만큼 목차도 바꾸고, 체계도 고쳐 세웠다. 그러나 기본적 관점에 있어서는 조금도 수정되지 않았다.” 그 기본 관점이란 “역사과학적 방법”과 “민족(주의적)” 중심의 문학사 인식이다.¹¹⁾ 후자는 조운제의 민족사관과 친연성이 높고 전자는 어쩌면 조운제의 문학사관을 비판적으로 혁신하는 방법이며 경로이겠다.

이러한 의의는 그것대로 살펴야 마땅하겠지만 「고려중기의 민족서사시」에서 묘하게 눈에 띄는 이우성의 진술은 달리 있다.

나는 이 논고를 작성하면서 이 논고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선배·동학의 이에 관련된 논술을 되도록 많이 인용하기로 했다. 그것은 선배·동학의 귀중한 논술을 나의 견해에 대한 주각으로 사용하려 한 것은 아니다. 학문의 전통이서 있지 못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선배·동학의 학문적 성과를 섭취하고 그것을 引伸發明하려는 우리 세대의 윤리감에서다.¹²⁾

묘한 말씀이다. 선배·동학의 기존 연구를 적극 원용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해당 논문에 이우성이 직접 인용하고 있는 기존 연구들 말이다. ‘이병도의 『고려시대의 연구』, 이명선의 『조선문학사』, 장덕순의 「영웅서사시 동명왕편」, 구자균·손낙범 등의 『국문학개론』, 이명구의 「경기체가의 형성과정 소고」, 조운제의 『국문학사』’ 등등이다. 물론 이우성 자신의 연구는 여기서 제외하였다. 놓고 보면 그다지 많다고 할 수 없는 목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우성의 진술에 함축된 뜻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이병도와 이명선처럼 서로 경향이 다른 선행 연구를 두루 참조할 필요성. 또는 이우성이 직접 비판적인 견해를 보인 장덕순의 「영웅서사시 동명왕편」이 자신과 이명구의 연구를 위시하여 고려 시대의 역사 연구 성과를 잘 살피지 않았다는 불만. 혹은 조운제의 문학사 서술 등 성취 뚜렷한 선배 세대의 작업과 토론하지 않는다는 안타까움 등등. 이 모두일 수도 있지만 하나만 들어야 한다면 마지막의 안타까움

11) 이우성, 「고려중기의 민족서사시」, 313면.

12) 이우성, 「고려중기의 민족서사시」, 314면.

이 아닐까 싶다.

1960~1961년의 격동을 그 배경에 둔다면 조운제의 행적이 의식될 수밖에 없다. 민족 혹은 역사의식을 강조하는 「고려중기의 민족서사시」에서 학문 전통의 축적을 요청하는 기저에 “우리 세대의 윤리감”이 작용한다면, 거기서 조운제의 문학사 서술과 깊은 관련성을 감지하는 것은 과도한 일인지 묻게 된다. 계승이든 비판이든 명확한 논급이 필요하다는 간절한 복화술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우성이 조운제의 『국문학사』의 한 대목을 인용하며 「고려중기의 민족서사시」를 마무리하는 데서, “선배·동학의 성과를 섭취하고 그것을 인신발명”한 직접적 사례를 확인해야 마땅하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우성이야말로 ‘조운제’ 이후를 ‘조운제’로서 살아낸 당사자일 수도 있다. 1962년이 단순한 연도처럼 보이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Ⅲ. 이우성과 『한국문학통사』의 문학사 인식 체계

조운제의 한국문학연구가 거둔 성취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거론된다. 문학사 서술의 민족사관, 강호가도의 미의식, 가사론(한국문학 분류론). 문학사관은 이우성에 의해 처음 본격적으로 다루어졌고, 미의식은 최진원(다시 이민홍)의 심화 작업으로 계승되고 있었다. 반면에 가사론은 본격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1969년 「판소리의 장르 규정」에서 장르류와 장르종의 구분을 이론화한 조동일은 「가사의 장르 규정」에서 교술 장르를 포함한 장르 사분법을 제기하였다. 이들 개별 장르종의 검토에 이어 장르들의 상호 관련성을 ‘장르 체계’라는 이론적 개념으로 포착하고자 하였다.

「18·19세기 국문학의 장르 체계」(1971)에서는 문학갈래를 하나씩 논한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동시대에 공존하는 문학갈래들은 서로 상보적이고 또한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는 원리를 문학의 양상이 앞 시기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18·19 세기를 예증으로 삼아 입증하고자 했다. 공존하는 갈래들의 상보적·경쟁적 관계의 총체인 “장르 체계”의 변화에 따라 문학사의 전개를 이해하자는 이론이 그 논문에서 비롯했다. 그 다음 논문 「가전체의 장르 규정」(1971)에서는 가전체를 동시대에 공존한 다른 여러 갈래와의 관련을 통해 이해하면서

한 시대 문학갈래의 총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고자 했다. 고려 후기에 대두한 신흥 사대부의 의식이 새로운 문학갈래로 표출되고 또한 철학사상으로도 정립된 양상을 서로 견주어 살피면서 문학사 이해를 심화하는 착상을 거기서 얻어, 『한국문학통사』 서술의 기틀을 마련했다.¹³⁾

문학 장르론은 문학연구의 고유한 영역이다. 그 독자성에 기반하여 장르들의 총체적 상호관계인 장르체계의 변천사를 문학사 인식과 서술의 핵심 영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장르 체계”의 의의이다. 그 장르 체계는 그 자체로 변화의 동인을 내재하지는 못하므로 계층 혹은 계급 변동과의 관련성에 주목한다. 거기에 입각해 구현된 결과물이 『한국문학통사』라는 것이다. 1971년의 두 논문은 바로 그러한 한국문학사의 이론적 구도를 제시하고 있다. 장르 체계의 변동을 다룬 두 대상은 고려후기와 조선후기의 문학사적 현실이다. “신흥사대부”와 “18·19세기”가 그 점을 지시하는 용어이다. 여기서 고려후기 신흥사대부의 등장과 조선후기 실학의 발흥을 통해 사대부계층의 대두와 분화를 문제시한 이우성의 연구가 배경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1991년 이우성은 『한국중세사회연구』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전반 약 10여년 동안에 씌어진 것”을 묶어 펴낸 결과물로서 “거의 전부가 1960년대 연구작업의 소산”이었다. 3부로 구성된 이 책 제1부는 토지소유 관계 문제를 다루면서 “신라 고려의 사료를 활용하여 사유제의 존재와 그 전개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제2부 “사회 계계층의 동향”은 이 책의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이른바 “인간중심의 역사”를 천명하는 데에 목표를 둔 성과였다. 저자의 목소리로 직접 듣는다면 이렇다.

당시 우리나라 역사학에 새로운 경향을 도입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인간중심의 역사’ ‘생동하는 역사’를 파악해보려 한 것이다. 역사를 창조하고 움직여 온 것은 바로 인간이다. 이러한 지극히 당연하고도 알기 쉬운 대전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 우리 국사학은 인간부재의 사학이 되어왔다. 특히 제도사·문화사로 주류를 이룬 국사학은 제도 및 문화 그것의 변이만을 다루어서 신라의 제도는 고려의 제도로, 그리고 신라의 문화양식은 고려의 문화양식으로 그

13) 조동일, 『한국문학의 갈래 이론』, 집문당, 1992, 12~13면.

스스로 옮겨온 듯이 설명되고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온 주체자로서의 인간 자체는 역사의 배후에 면을 감추어버린 결과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여기 말하는 인간이란 어느 특정한 인간, 또는 일상 속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계층·집단으로서의 인간을 말한다. 사회는 크게 보아 두 개의 계급의 대립관계로 규정되고 있지만 역사의 전개과정은 너무나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므로 두 개의 계급의 대립관계만으로 단순화해서는 역사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다. 이에 여기 각계각층에 속하는 집단적 인간들의 위치와 성격을 그 구조로부터 분석하고 다시 이 구조론적 분석에서 한걸음 나아가 그 역사적 활동을 전진 방향에서 부각시키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집단적 인간들이 어떠한 사회체제 속에 살아가면서 그 체제를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저항했으며, 어떻게 변혁시켜나갔던가, 그리고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고통받았던가를 나름대로 체득하고 서술해보려고 노력한 것이다. 다만 여기 당시 사회의 직접생산자인 농민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구명하지 못하고 만 것은 크게 유감스러운 일이다.¹⁴⁾

이 목소리는 1960년대 한국학계에 제기된 적극적인 역사 해석이었다. 요약하자면 계급론적 시각에서의 계층론에 주목하고자 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 목소리를 문학사 인식 및 서술 체계의 구축과 관련하여 좀더 집중해서 들여보자면, “우리나라 중세의 관인지배층 특히 고려중기부터 이조말기에 이르는 지배층”의 성격과 그 역사적 위상을 해명하고자 하는 의지로 증폭된다. 바로 “처음으로 ‘사대부’라는 명칭을 붙이고 이 사대부의 출자를 고려의 지방이속 내지 촌락토호계에서 찾는 동시에 그 원초 형태가 고려 무신정권하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능문능리의 신관료’라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¹⁵⁾

이우성의 연구는 당시 한국사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1974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한국사 통사에 확연한 모습으로 드러났다. “권문세족의 親元的인 태도나 또 농장과 노비를 중대시케한 사실을 비판하며 새로이 등장한 사회세력이 士大夫였다”는 역사 인식 아래, “고려후기에 새로이 싹터 나오던 다음 시대의 주인공

14) 이우성, 『한국중세사회연구』, 9~10면.

15) 이우성, 『한국중세사회연구』, 9면.

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는 기대가 표명되어 있다.¹⁶⁾ “신홍사대부의 대두”라고 설정된 독립된 항목에서 적잖은 분량으로 서술된 데서 저간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¹⁷⁾ 더 나아가 1996년에 새롭게 간행된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에서도 여전히 그 인식의 기본틀은 지속되었다. “신진사대부의 대두와 그 성격”이라는 제목 아래 이우성의 연구 성과들을 제시하였다.¹⁸⁾ 이우성의 연구는 여전히 그 역사적 유효성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우성이 말한 “인간중심의 역사” 즉 신홍사대부론 혹은 이를 통한 고려후기의 역사적 성격 규명 작업을 전제로 할 때, 조동일이 고려후기 문학사의 장르 체계를 설명하는 장면에서 이우성의 목소리가 함께 들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조동일-이우성에 따르면, 고려후기의 가전체는 景幾體歌·歌辭·夢遊錄·辭·賦·‘書·記·論·策’ 등 “다른 여러 교술장르종들과 일정한 체계적인 관계를 맺으며 공존했다.” “가전체, 경기체가, 사·부는 대체로 12세기 말~13세기 초에 나타나고, 가사와 몽유록은 15·16세기에 나타났다. 뒤의 둘이 나타나자 교술장르종들의 체계가 달라졌다.” 이러한 체계 변화를 추동한 핵심 동인은 신홍사대부의 등장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서술에서 관건이 되는 신홍사대부의 역사적 성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우성의 연구에 의거하고 있다. 「고려백성고」(1961), 「고려조의 畵에 대하여」(1964), 「고려말, 이조초의 어부가」(1964) 등이 거론되며 장문의 직접 인용 등 모두 4차례 인용된다.¹⁹⁾ 이로부터 도달된 결론은 이렇다.

실질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사물에의 관심을 철학적으로도 전개한 신홍 사대부가 대두하자, 가전체를 위시한 여러 교술장르종들이 창출되었다. 사대부는 종래의 서정문학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물의 문학인 교술을 요청했다. 사물에의 관심을 「사기」의 격조 높은 형식을 가져와 문학적으로 상승시킨 가전체의 인공성과 비실용성은 일상생활의 차원을 넘어서 사물의 의미를 신선하게 추구하는 데 유리한 작용을 했다. 가전체는 사물의 의미와 인생의 교훈을 함께 추구

16)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8, 1974, 5면.

17) 『한국사』 8, 142~174면.

18)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19, 1996, 96~117면. 특히 97, 98, 103, 113면 등에서 이우성의 연구를 직접 거론하였다.

19) 각주 9), 10), 14), 21) 등.

하는 것 또한 사대부의 사고방식과 합치된다.

사대부가 보수적인 경향을 띠고 심성의 탐구에 관심을 가지면서 가사와 몽유록이 나타나고, 마음을 의인화한 가전체 작품이 생겨났다. 가전체는 조선 후기에도 계속되었으나 창의적인 작품은 찾기 어렵다. 교술문학보다 서사문학이 더 중요한 구실을 하는 시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²⁰⁾

“신흥사대부”는 고려중기 무신란 이후부터 시작되는 중세후기 문학사의 시작을 알리는 존재이다. 장르체계의 거시적 변동은 문학담당층의 세력 교체로 인해 발생한다. 문학담당층의 교체는 세계관의 전환 즉 사상사적 전변도 수반한다. 신흥사대부의 등장은 사회·정치사적 세력 변동에 해당하고 “사물과 심성을 둘 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상사적 전환이 교술시와 서정시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갈래체계의 세계관적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훗날 『한국문학통사』로 이어지는 이러한 문학사의 이론은 기실 이우성의 신흥사대부 연구가 촉발한 것이다.

장르 체계의 변천사가 곧 문학사이고 그 유의미한 변천에 따라 시대구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주지하다시피 조동일의 장르론에서 핵심은 교술 장르의 설정에 있다. 그 교술 장르가 서정 장르와의 상보적·대립적 체계를 구성하면서 장르체계의 변동을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교술갈래 내부에서도 다양한 하위 장르종들이 출현·교체하면서 체계 변동을 형성한다. 그 관건이 문학담당층으로서 문학사의 전면에 나선 신흥사대부라고 한다면 『한국문학통사』 서술 체계에 미친 이우성의 영향은 자못 지대하다 하겠다.

위 인용문에서 가사와 몽유록의 출현을 사대부의 보수화 경향과 관련지어 설명한 대목도 이우성의 언급을 환기한다. 앞서 보았듯이 이우성은 사대부문학의 대두를 조운제가 서술한 ‘귀족문학과 평민문학의 대립’을 경유하여 설명하였다. 이것은 사대부의 지배계급화 과정을 함축하거니와, 「고려말, 이조초의 어부가」에서 이우성이 그 일면을 구도화한 양상이기도 하다. 단순히 보수화라고만 하기는 어렵고 내재하고 있던 확산·심화·분화의 계기들이 발현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우성에 따르면 고려 후기의 경기체가와 어부가 등은 고려전반기의 귀족문학과는 시대적 성격을 달리하는 ‘사대부의 문학’이다. 중앙 관료이면서 동시에 지방의 지주

20) 조동일, 「가전체의 장르 규정」, 『한국문학의 갈래 이론』, 150면.

인 사대부는 양면의 생활세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 양면성으로 인해 관각문학—관료적 문학과 강호문학—치사적 문학의 두 세계가 형성되었다. 경기체가가 그리는 세계는 관료적 문학의 세계이고 어부가의 세계는 치사적 문학의 세계에 해당한다.²¹⁾

훗날 사대부문학은 임형택에 의해 위의 두 세계에다가 ‘방외인 문학’을 포함한 세 영역으로 정식화되고²²⁾ 『한국문학통사』 역시 그러한 구도를 수용하여 서술된다. “관인문학과 왕조사업의 표리”, “사림문학과 심성에서 우러나오는 소리”, “방외인문학과 반발의 양상”이 그 각각의 표제들이다.²³⁾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선후기 실학과에 이르기까지가 고려후기에서 조선후기까지 이어지는 사대부의 시대이다. 훈구파와 사림파의 대립, 사림파의 내부 분화가 그 골간을 이룬다.

IV. 이우성과 『한국문학통사』의 실제 서술 양상

한국문학사의 인식 및 서술 체계 구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이우성의 연구는 다분 문학사의 이론과 같은 거시적 차원에 해당하는 듯하다. 그렇지만 그 관건처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럴 따름이지 실제로는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지점도 적지 않다. 우선 『한국문학통사』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찾아보기로 한다. 『한국문학통사』는 모두 4개의 판본²⁴⁾이 있지만 여기서는 1982년부터 처음 간행된 초판본의 경우만 다루기로 하겠다.

21) 이우성, 「고려말, 이조초의 어부가」, 419~421면.

22) 임형택, 「이조전기의 사대부문학」(1974),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비평사, 1984, 359~418면.

23)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권(1판), 지식산업사, 1983, 340~421면.

24) 제1판은 1982~1988년, 제2판은 1989년, 제3판은 1994년, 제4판은 2005년에 간행되었다.

『한국문학통사』(제1판)의 이우성 연구 논저 인용 사항

	시대 구분	항목 제목	논저 제목	연도
1	중세전기 1기	남북국 시대의 상황과 문학	〈渤海國志長篇〉영인본 해제	1977
2	중세전기 1기	남북국 시대의 상황과 문학	〈남북국시대와 최치원〉	1975
3	중세후기 1기	무신란, 몽고란과 문학	〈고려무신정권하의 문인 지식층의 동향〉	1977
4	중세후기 1기	무신란, 몽고란과 문학	〈고려 시인에 있어서의 문명의식의 형성〉	1968
5	중세후기 1기	불교문학의 새로운 경지	〈고려후기의 선가문학-원감의 시세계〉 (미확인)	1976
6	중세후기 1기	민족사 재인식의 시대	〈고려중기 민족서사시〉	1962
7	중세후기 1기	민족사 재인식의 시대	〈고려중기 민족서사시〉	1962
8	중세후기 1기	속악가사와 소악부의 세계	〈고려말기의 소악부-고려속요와 사대부문학〉	1976
9	중세후기 2기	왕조교체기의 한문학	〈고려 · 이조의 역성혁명과 원천석〉	1973
10	중세후기 2기	왕조교체기의 한문학	〈고려말, 이조초의 어부가〉	1964
11	중세후기 2기	관인문학과 왕조사업의 표리	〈이조사대부의 기본 성격〉	1979
12	이행기 1기	문학담당층의 확대에 따른 변모	〈김추사 및 중인층의 성령론〉	1981
13	이행기 1기	실학파문학의 새로운 방향	〈녹암 권철신의 사상과 경전 비판〉	1982
14	이행기 1기	실학파문학의 새로운 방향	〈실학파의 문학〉	1957
15	이행기 1기	실학파문학의 새로운 방향	〈18세기 서울의 도시적 양상〉	1963
16	이행기 1기	실학파문학의 새로운 방향	〈김추사 및 중인층의 성령론〉	1981
17	이행기 1기	가사의 복고와 혁신	〈18세기 서울의 도시적 양상〉	1963
18	이행기 1기	설화, 야담, 한문단편	《이조한문단편선》	1973
19	이행기 1기	설화, 야담, 한문단편	〈실학파의 문학〉	1957
20	이행기 1기	설화, 야담, 한문단편	〈호질의 작자와 주제〉	1968

먼저 눈에 띄는 것은 1~2 중세전기기의 “남북국시대”라는 용어이다. “4.7 남북국 시대의 상황과 문학”이라는 목차는 “동아시아 문학의 판도”, “발해 문학의 위치”, “발해 시인이 남긴 작품”, “신라 문학과 대외 관계”라는 하위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북국 시대라고 명명된 이 시기 동아시아 전 영역은 거의 당나라 문화가 주도하고 있었지만, 당나라 문화라는 것 자체가 “이질적이고 복합적인 요소들을 한데 아울러서 얻은 보편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를 전제할 때, 적잖은 갈등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일체감은 그 나뉠 것으로 지속되었고 그 결정적인 구실을 “한문과 한문학”이 담당했다고 판단한다.

“신라, 발해, 일본, 월남 중에서 문에서든 시에서든 한문학적 능력이 특히 앞섰던 나라는 신라 또는 발해”였다고 하면서, “신라 문학에 대한 연구 열의는 언제나 압도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시대의 남북국 두 나라 중에서 어느 한쪽의 문학은 일방적으로 망각하는 것이 잘못임을 거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어 서 발해 시인들의 작품들을 몇 편 들어 전반적 성격을 지적한다.²⁵⁾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문학통사』는 발해와 신라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용어를 시대 명칭으로 선택한 것이다. 이 시기를 남북국시대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은 이우성의 지론이다. 신라 시대에 이미 발해를 “북국”이라 지칭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유득공 같은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견해를 계승하는 한편으로 『삼국사기』의 편향성에 주의하지는 뜻이기도 하다.²⁶⁾ 『한국문학통사』의 해당 참고문헌란에도 김육불의 『渤海國志長篇』를 영인하면서 붙인 이우성의 해제와 이우성의 논문 「남북국시대와 최치원」을 인용하고 있다.²⁷⁾

3~8은 중세후기문학 제1기 즉 무신란~조선건국의 시기에 해당한다. 『한국문학통사』 “6. 무신란, 몽고란과 문학”의 첫 번째 세부 항목 “시대 변화의 추이”는 기본적으로 무신란 이전의 문인과 무신란 이후의 문인은 이질적이라고 천명하는 것이 그 골자이다. 이른바 “지방 향리 또는 중소 지주층에 기반을 둔 문인들이 중앙 정계로까지 등장해서 새로운 문학을 이룩하는 주체가 되었”거니와, “이들을 신흥 사대부 또는 신진 사류라고 한다.” 이 시기부터 이 계층이 주도하기 시작할 문학은 “산천의 아름다움이 아닌 농촌실정을 문제삼고, 농민의 어려운 처지에 공감하고자 하는” 문학이었고, 몽골과의 항쟁과정에서 확인되었던바 “상하의 의지가 일치했던 것이 소중한 경험이었으며 새로운 문학이 진취적이고 민중적인 입장을 지닐 수 있게 하는 데 더없이 좋은 계기였다.”²⁸⁾ 간추리자면, 민족적·민중적 지향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뜻이다.

25)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권, 214~234면.

26) 이우성, 「남북국시대와 최치원」, 『한국의 역사상』, 173~174면.

27)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권, 지식산업사, 1982, 224~225면. “본문에서 이용한 자료는 대부분 김육불金毓黻의 〈渤海國志長篇〉에 모아 놓은 것이다. 이 책의 성격은 1977년에 이우성이 영인본 서두에 붙인 해제를 통해 알 수 있다. (……) 이 밖에 참고한 논문은 이우성, 〈남북국시대와 최치원〉(《창작과비평》 38, 1977)”

이미 앞서 충분히 상술한 바 이 시기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이우성의 견해와 거의 동질적인 서술이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이 세세하게 느껴진다. 『한국문학통사』에서는 “이 시대 문학의 성격에 관해서 (……) 이우성, 〈고려무신정권하의 문인 지식층의 동향〉, 《한국의 역사상》(창작과비평사, 1982)²⁹⁾”라고 참고문헌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이 글은 무신정권에 대한 대응 방식에 따라 문인의 유형을 넷으로 나눈다. 그런 다음 “끝내 무신정권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현실권 밖에서 자기의 주체성을 지키면서 청고한 일생을” 보내면서 “지방의 젊은 자제들을 모아놓고 교육에 종사했던” 두 유형의 문인, 공주의 신준과 원주의 권돈례 등을 꼽는다.³⁰⁾ 물론 이들에게서 사대부계급의 대두를 예감해서이지만, 1977년이면 군부 출신 권력의 유신체제가 그 억압도를 높여가던 시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묘한 소회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도 읽힌다.

4는 『한국문학통사』에서 “최씨정권의 문인들”이라는 세부 항목을 두고 진화의 시세계를 다루면서 인용되었다. 이렇게 서술되어 있다. “죽림고회의 문인들에 대한 관심은 대단했던 반면에 최씨정권에 참여한 문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사회적 성격이나 개괄적으로 다루고 작품은 문제삼지 않은 것이 그동안의 폐단이었다. 다만, 이우성, 〈고려 시인에 있어서의 문명의식의 형성〉, 《한국의 역사상》에서는 특히 진화의 경우를 적극적으로 평가했다.”³¹⁾ 『한국문학통사』 본문에서도 이우성의 논문에서 주목한 〈桃源歌〉와 〈奉使入金〉를 함께 소개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의의를 “고려인으로서의 시대적 자각과 민족적 긍지”에서 찾은 이우성의 평가가 동일하게 반복된다.³²⁾

5는 “불교문학의 새로운 경지”를 서술하면서 원용하였다. “1976년 10월 10일 한국한문학연구회에서 이우성이 〈고려후기의 선가문학—원감의 시세계〉라는 발표를 했으나, 논문이 어디 나온 것 같지는 않다.”³³⁾고 적혀 있다. 6~7은 “민족사 재인식의 시대”라는 이 시기의 주요한 특징을 서술하면서 들었다.³⁴⁾

28)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권, 1983, 11~14면.

29)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권, 14면.

30) 이우성, 「고려무신정권하의 문인 지식층의 동향」, 『한국의 역사상』, 222~227면.

3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권, 28면.

32) 이우성, 「고려시인에 있어서 문명의식의 형성」, 『한국의 역사상』, 208면.

33)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권, 77면.

8의 소악부 관련하여 이우성은 고려말기 소악부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소악부를 통해서 한문학은 고려속요와의 접목을 달성함으로써 민족의 정취와 운치를 섭취하고 체득해서 우리나라 문학으로서의 자기 체질의 개선과 자기 위치의 정립을 지향했다고 볼 것이다.”라고 서술하였다. 『한국문학통사』의 “소악부는 이처럼 한시이면서 우리말 노래 특히 민요의 진솔한 사연을 담으려고 했기에 주목된다. 한시와 우리말 노래 노래가 공존하는 것이 중세문학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했는데, 고려 후기 신흥 사대부는 둘이 각기 그것대로의 영역을 지키도록 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둘을 접근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소악부를 창안했”다는 평가는 역시 이우성의 소악부 평가와 궤를 같이 한다.³⁵⁾

9~11이 인용된 『한국문학통사』의 “중세후기문학 제2기”는 조선전기이다. 그 첫째 항목이 “왕조교체기의 한문학”인데, “정도전과 권근이 수행한 과업”과 “원천석과 길재가 선택한 길”을 대비하였다. 이우성의 연구는 후자와 관련이 있다. 특히 원천석에게서 이우성은 올곧은 역사의식을 부각한 반면에 『한국문학통사』에서는 방외인적 경향에 착목하는 점이 차이가 있다. 길재는 「어부가」와 관련지으며 “도학의 연맥을 잇고 강호에서 노니는 흥취를 거기다 덧보태는 데서, 관인문학과 구별되는 처사문학 또는 사장파와 취향을 달리하는 사림파의 문학”을 예비함을 부각한다.³⁶⁾ 9의 논문도 관인문학과 처사문학을 구분하는 데서 언급하고 있다.³⁷⁾

34)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권, 88, 102면. “〈동명왕편〉을 다룬 대표적인 논문은 (……) 이우성, 〈고려중기 민족서사시〉, 『한국의 역사역사인식(상)』(창작과비평사, 1976)”, “〈제왕운기〉에 관한 연구로는 (……) 이우성, 〈고려중기의 민족서사시〉”

35) 이우성, 「고려말기의 소악부」, 『한국중세사회연구』, 397~398면; 『한국문학통사』 2권(1판), 161면. 이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참고 논문을 든다면, (……) 이우성, 〈고려말기의 소악부—고려속요와 사대부문학〉, 《한국한문학연구》1(한국한문학연구회, 1976)이 있다. 특히 뒤의 논문(이우성의 논문—인용자)에 힘입은 바 크다.”라고 직접 밝혀 놓았다.

36) 이우성, 「고려·이조의 역성혁명과 원천석」, 『한국의 역사상』, 239~246면; 『한국문학통사』 2권(1판), 254면. “원천석은 이우성, 〈고려·이조의 역성혁명과 원천석〉, 《한국의 역사상》(창작과비평사, 1982)이 보일 뿐,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 (……) 고려말, 조선초의 문학이 관인문학과 처사문학으로 나누어졌던 사정은 이우성, 〈고려말, 이조초의 어부가〉, 《성균관대학교 논문집》 9(1964)에서 자세하게 다른 것을 따르고, 〈어부가〉에 관한 고찰도 그 글에 의거했다.” (254~255면).

37) 『한국문학통사』 2권, 344면.

12~20은 비록 거론된 항목들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보아 “실학과문학”이라는 말로 포괄할 수 있다. 『한국문학통사』에서도 표제로 제시한 “실학과문학”은 기실 이우성의 논문 「실학과 문학」(1957)에서 연유하였다. 이우성에 따르면 18세기 전후 士로서의 자기 인식과 신흥상인의 움직임이 박지원의 문학과 사상을 배태했다. 권력에서 소외된 士의 비판 정신이 실학으로 전환되었고 서울의 도시적 분위기 속에서 신흥 상공업자를 위시한 서민 세계와의 접촉으로 박지원이 진보적 창조성을 확보하였다.

가령 〈허생전〉의 허생이 士이면서도 상인으로서 활동하다가 다시 士로 환원한다는 사실은 박지원의 문학이 사의식과 서민의식이 혼효된 문학이고 다음 시대의 서민문학에 이르기까지의 과도기적 성격의 문학임을 알려준다.³⁸⁾ 15의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학과 의식의 성립 배경이랄 수 있는 서울의 도시적 상황과 상공업자의 동향을 파악하여, 그러한 조건 속에서 생활하던 문인 지식인층 즉 박지원으로 대표되는 이용후생(적 실학)파의 존재 양상을 구체화하였다.³⁹⁾ 이를 통해 하나의 유파 즉 ‘실학과문학’이라는 용어의 역사적 범주가 개념화되었다.⁴⁰⁾

이러한 연장선에서 이른바 “한문단편”의 영역에 대해서도 임형택과 더불어 연구의 초석을 다졌다. 18의 편역서가 그 성과이다. 이우성 자신은 주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자료로 재가공하는 작업에 힘썼지만, 임형택의 말을 빌리자면, “한문단편”이란 “주로 19세기 전후에 지어지고 읽혀졌던 한문 단편문학”으로서 “단편소설처럼 바로 근대 시민사회를 자기 배경으로 갖지 못하고 중세 하향기에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함께 발생한 시정문학의 일환으로 성립된 것”이다.⁴¹⁾ 이것이 한문단편의 문학사적 성격이겠다.⁴²⁾

직접적으로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실학과를 “경세치용학과” “이용후생학과” “실사구시학과”로 구분한 이우성의 구도⁴³⁾도 『한국문학통사』에서 그대로 원용된다. 이

38) 이우성, 「실학과 문학」, 『국어국문학』 16, 국어국문학회, 1957, 99면.

39) 이우성, 「18세기 서울의 도시적 양상—실학과 특히 이용후생파의 성립 배경」; 「실학과 문학관 사회관」, 『한국의 역사상』.

40) 임형택, 「실학과문학과 한문단편」, 『한국문학사의 시각』, 423~424면.

41) 임형택, 「실학과문학과 한문단편」, 『한국문학사의 시각』, 434면.

42) 「김추사 및 중인층의 성령론」, 「호질의 작자와 주제」 등에 대해서는 생략한다.

43) 이우성, 「실학연구서설」, 『한국의 역사상』, 18~21면.

세 용어를 직접 거론하며 세 학파에 대해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⁴⁴⁾ “8.6. 실학과문학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제목 하에 놓인 하위 항목들이 “이익과 그 후계자들”, “홍대용과 박지원”,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이서구”, “이옥, 정약용, 이학규”, “김정희 이후의 변모”라는 데서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아울러 박지원과 정약용을 대표적 인물로 대비하는 방식도 이미 이우성에 의해 선풍이 마련되었던 터였다.⁴⁵⁾

V. 나가며

앞서 살폈듯이 이우성은 조윤제의 『국문학사』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한편으로 조동일 『한국문학통사』의 한국문학사 인식 체계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우성 본인이 직접 천명한 한국문학사의 역사상은 부분적이었지만 그것이 없었다면 한국문학사의 전반적 면모를 구조화하는 성과는 쉽게 등장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할 만하다. 이러한 전반적 평가는 그것대로 적실하게 드러내야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우성의 한국(문학)사 인식이 『한국문학통사』를 위시하여 여타의 한국문학사 서술에 두루 다 반영된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듯하다. 이 문제는 다시 집중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거니와 본고에서는 다만 이 문제의 소재를 환기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를 대신하고자 한다.

단적으로 『한국문학통사』에서 인용한 13 「녹암 권철신의 사상과 경전 비판」은 다른 연구성과들과는 결이 다르다. 실제 『한국문학통사』에서도 권철신의 문학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확실히 1970년대를 거치면서 「실학파의 문학」과 「18세기 서울의 도시적 양상」 등에서 부각된 근대지향성에 대한 이우성의 관심축이 조금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가령 「이조후기 근기학파에 있어서 정통론의 전개」(1966) 같은 경우는 이른바 경세치용을 특징으로 하는 성호 이익 학파의 역사인식을 다룬다. “성호에서 비롯한 정통론이 순암에 이르러 역사파악에 있어서의 체계성을 낳게 하였고, 다산에 이르러

44)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권, 220면.

45) 이우성, 「실학파의 문학과 사회관」, 『한국의 역사상』, 81~82면;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권, 219면.

현실론적 주장으로 중화주의의 절대성의 잔재가 일소되고 현실성에 입각한 역사의 이해를 가져오게 했다.”⁴⁶⁾는 결론에서처럼 민족주의적 역사 인식의 전통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실학파의 역사 인식을 사학사적 시각으로 재평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문학통사』가 한창 집필되던 1980년대 무렵에 발표된 이우성의 다음과 같은 진술을 겹쳐 읽는다면 조금 묘한 의문이 든다.

“성호는 실학의 대가로서 공정한 마음과 높은 한식으로 당파에 얽매이지 않아서 그 시정을 논함에 있어서는 율곡을 가장 으뜸으로 여겼고 사단칠정의 논쟁에 있어서는 퇴계를 옹호하고 율곡을 비판하였다. 또한 일찍이 퇴계의 언행을 엮어서 『道東錄』을 만들어 그의 제자들에게 주기도 하였다. 성호가 퇴계를 존모하는 생각은 지극하다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호 이후에 좌우 양파로 갈리어 사상의 대립이 심각한 데까지 이르렀으나 퇴계를 존경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다름이 없었다. 안순암은 『도동록』을 개편해서 『이자수어』를 만든 뒤에 그것을 황하러에게 전하여 자파의 전수하는 旨訣로 삼도록 하였고, 권녹암은 마음가짐을 참되고 공손히하여 깊이 퇴계의 ‘敬’ 사상에 합치된 바가 있었다. 녹암은 중간에 양명학을 좋아하다가 뒤에 천주교에 들어갔다는 오해를 받아 죽게 되었으나 그가 퇴계를 존경하는 데에 있어서는 시종 한결같았다. 정다산 형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찍이 천주교에 들어 갔었지만 다산은 좀더 일찍 손을 떼었다. 그런데 늙도록 ‘昭事上帝’ 등의 말을 애용하였음을 볼 때에그 또한 심학에 있어서 실제 깊이 종사하는 바가 있었음을 알수 있다. 다산은 천주교 사건으로 인해서 금정역승으로 좌천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 『陶山私淑錄』을 지어서 퇴계를 다시금 존모하였다. 퇴계는 일찍이 학자들을 훈계하면서 “마음 공부는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지 않는 데에 있다” 하였는데, 다산의 ‘소사상제’는 실로 이에서 나온 듯하다. 성호 좌파는 일찍이 주자학설에 대해서 크게 비판적인 견해를 가졌지만 퇴계에 대해서만은 끝까지 독신하여 변함이 없었다. 나는 이를 심히 기이하게 여겨왔는데, 근래에 와서 조금은 이해할 듯도 하나 여기서는 우선 밝히지 않기로 한다.”⁴⁷⁾

46) 이우성, 「이조후기 근기학파에 있어서 정통론의 전개」, 『한국의 역사상』, 104면.

47) 이우성, 「한국유학사상 퇴계학파의 형성과 그 전개」, 『한국의 역사상』, 114~115면.

이 모임(1779년 天真菴 走魚寺 講學-인용자)에 참가한 사람은 정약전·김원성·권상학·이충익 등인데 이벽이 밤중에 눈을 밝고 찾아와 크게 분위기를 조성하였고(다산 자신이 참가했다는 말은 없다), 이 강학 기간에 녹암이 매일 매일의 생활규칙을 만들었는데 새벽에 얼음을 깨고 세수를 한 뒤에야 夙夜箴을 외우고, 일출 때에 敬齋箴을, 정오에 四勿箴을, 일몰 후에 西銘을 외우기로 하여 莊嚴恪恭한 자세로 심신을 닦았다고 하였다. 위의 잠·명들은 모두 송나라 성리학자들이 지은 것으로 유교학자들의 일상 수양에 필요한 글들이며, 퇴계가 손수 베껴 편찬한 『古鏡重磨方』이라는 책 속에 실려 있는 것들이다. 요즘 퇴계의 ‘敬’ 사상의 종교성을 말하는 학자도 있거니와 이 장엄각공은 곧 ‘敬’의 종교적 실천이다.⁴⁸⁾

남인 계열의 근기학파에서 사학을 중시하는 실학적 경향에 대한 강조는 여전한 가운데 그리고 이우성 본인 학문의 가학적 연원이기도 함을 드러내는 가운데,⁴⁹⁾ 주자학의 조선적 분화 혹은 주자학과 퇴계학의 거리를 환기하는 인상이 뚜렷하다. 이우성에 따르면, 성호학파로 대표되는 근기 실학파는 한강 정구와 미수 허목 등을 통해 퇴계학맥에 연계된다. 성호학맥의 좌우 분기는 성호 자신은 물론이고 결국 퇴계학속에 내재된 복합적 경향성의 확인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며, 퇴계학맥 내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성호 이익의 학문에 내재된 퇴계적 계기일 수도 있겠다. 이것은 경세치용학에는 때론 그것을 고무하고 때론 그것을 제약하는 초월(론)적 계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내재되어야만 한다는 뜻으로도, 좀더 비약하자면 근대지향성을 제약하고 때론 그것과 길항하는 내부적 역학 구조 같은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읽힌다.

여기에는 한국 사회 현실의 변화에 따라 이우성의 근대 인식과 한국학적 전망에 대한 재조정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에 더하여 이우성의 개인사적 이력까지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우성이 환기하듯, 퇴계와 성호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 혹은 성호 내부에 잠재된 퇴계적 계기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현재적으로 인격화한 자리가 바로 박사 이우성 본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퇴계적 계기의 급진화 계열에 위치한 이가 다산 정약용이라면, 성호 좌파의 심학적 급진성과

48) 이우성, 「녹암 권철신의 사상과 경전 비판」, 『한국의 역사상』, 123면.

49) 이우성, 「퇴수재집 해제」(1997), 『고양만록』, 301~306면; 「이조후기 근기학파에 있어서 사학의 형성과 『동사강목』」(2004), 『고양만록』, 60~61면.

이우성이 주목하는 정약용의 ‘民論’이 근접해 있다는 뜻일 수도 있겠다.⁵⁰⁾

이우성이 품고 있던 한국의 역사상에 이런 경향성이 실제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한 한국(문학)사의 인식 체계는 지금껏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듯하다. 그러한 문학사의 인식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내재와 초월이 공존하고 지향과 부정이 동시적으로 길항하는 긴장을 내포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1990년 이우성의 정년 퇴임 기념 논문집에 서문을 쓴 이가 민영규라는 사실에도 눈길이 간다. 민영규는 1970년대까지 이우성의 실학론에 대해 양명학 혹은 심학적 입장에서 선명하게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온 당사자이기 때문이다.⁵¹⁾ 우연인지 아니

50) 이우성, 「다산의 정치경제사상 序」(1990), 『실시학사산고』, 312면. “18세기에서 19세기로, 세기의 교체는 다산의 운명을 하나의 분기점으로 갈라놓았다. 1800년에 정조가 죽고 순조가 왕위에 올라 외척이 다시 횡포를 부리게 되자 다산의 일가는 혹독한 수난기로 접어들었다. (……) 그러나 그로부터 다산의 사상은 중요한 전환의 계기를 찾았다. 국왕의 힘을 통하여 정치를 바로잡아보려던 다산은 이제 고개를 돌려 ‘민’의 존재에 주의를 기울였다. 실제로 ‘민’의 성장과, 성장에 따른 새로운 동향은 중세 후기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원목·탕론 등 ‘민’을 주체로 한 정치사상과 여전론과 같은 토지제도의 구상도 모두 그의 후기의 작으로 보인다. 여전론이 초년작이라는 기록이 있다고 하지만 사상내용으로 보아, 현실적으로 이씨조정과 밀접한 관계가 다 끊어지고 난 뒤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론이라고 여겨진다. 一表二書와 같이 현실적 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의 근원적 사상논리를 담아놓은 몇 편의 글에서 우리는 다산이 도달한 사상사적 지점을 측정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51) 민영규, 「위당 정인보선생의 행장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實學原始」(1972), 『강화학 최후의 광경』, 우반, 1994, 78~86면. “도대체 우리 나라 근세 學術에서 實學이란 낱말은 그렇게 자주 쓰이던 용어가 아니다. 손쉽게 쓰일 성질의 것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애오라지 허식과 가장을 배격하고, 스스로 성실하고 참(진실)되기를 희구하는, 학문하는 사람으로서의 몸가짐을 가리키는 데서 시작된 말이었기 때문이다. (……) 모든 행위에 대한 도덕적 가치판단의 기준은 오로지 그 동기의 성실성 여하에 있고, 그것이 결과 여하에 관계하지 않는다. (……) 이 점 陽明學도 그렇고, 朱子學도 그렇고, 그 발단에 있어 엄숙한 동기주의였었다고 보아서 좋다. 實學의 本義는 실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 星湖나 茶山 등 근세 學術에 나타난 어떤 특성을 가리켜 實學이라 이름하고 그것이 뜻하는 바 實學·實業의 功利主義論으로 내용을 바꿔가고 있음은 무슨 까닭인가. (……) 만일 여기에 계승자로서 위당 자신의 實學에 대한 의견을 증언대에 올릴 수 있다면 그렇게 고마울 도리가 없을 것이다. 그것이 있었다. 陽明學演論第四章 大學問 拔本塞原論에서 中庸首章「慎其獨也」를 설명하고, 「외오서(獨)」의 곳은 일체 虛와 假가 부접하지 못하므로 이에서 「삼감(慎)」이 곧 「實學의 核이다」라고 밝힌 점이다. (……)이 점 中庸의 慎獨을 표방하고, 良心을 속일 생각을 말고, 결과의 功利가 아니라 동기의 純과 誠 여하에 가치판단의 기준을 두려 할 때, 黨色과 學派의 소속 여하를 막론하고 實學의 범주에 넣어서 좋다. 實學의 핵심은 곧 實學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면 그럴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단정하긴 어렵지만, 성호학맥 내부의 심학적 계기가 실학의 외연을 훨씬 넓혀 놓은 것만은 분명할 듯하다. 이런 이유로도 이우성의 학문적 성취는 다시금 반복해서 음미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8, 1974

_____, 『한국사』 19, 1996

이우성, 『이우성저작집』 1~8, 창작과비평사, 2010

임형택,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비평사, 1984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4(1판), 지식산업사, 1982~1988

_____, 『한국문학의 갈래 이론』, 집문당, 1992

조운제, 『국문학사』, 동국문화사, 1949

_____, 『한국문학사』, 동국문화사, 1963

민영규, 「위당 정인보선생의 행장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實學原始」, 『강화학 최후의 광경』,
우반, 1994

이우성, 「실학파의 문학」, 『국어국문학』 16, 국어국문학회, 1957

Lee Woo-sung and His Influence on the Perception of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Ryu, Jun-pi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how Lee Woo-sung's study of Korean literature influenced the perception of Korean literary history. Although Lee Woo-sung had never written Korean literary history himself, he had a profound influence on the perception and description of Korean literary history. In particular, from the Goryeo Dynasty to the late Joseon Dynasty, it laid the foundation for a systematic view of the changes in Korean literary history, focusing on the historical growth and decline of the 'Sadaebu(nobility)'. Putting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o Yoon-jae's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and Cho Dong-il's "Korean Literature History," I examined how Lee Woo-sung's researches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Cho Dong-il's theory of literary history.

Key Words : Lee Woo-sung, Cho Yoon-jae, Cho Dong-il,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